중국 고전 명언 사전

中國 古典 名言 事典

모로하시 데쓰지 지음

논어論語

『논어』는 공자(기원전 552~479)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 〈논論〉에는 논의, 〈어語〉에는 답술이라는 원래의 뜻이 있다. 즉 『논어』는 공자가 논의하고 답술한 말을 편집한 것이다. 편집한 사람은 문하생인 증자曾子나 유자有子에 이어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대漢代 『논어』에는 『노논어魯論語』『고논어古論語』『제논어齊論語』라고 불리는 세 가지 책이 있었다. 『고논어』는 노魯나라의 공왕共王 때 공자의 집 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21편이고, 『제논어』는 제齊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22편이었는데, 일찍이 모두 없어지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노논어』 20편뿐이다.

『논어』의 내용은 인생의 모든 면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그 가르침은 타당하고 올바르며, 서술은 간결하고 쉽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의 많은 고전 중에서도 특수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옛날부터 선현들이 이 『논어』를 가리켜 〈우주제일의 책〉이라고 칭송한 것도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545구를 뽑아서 기록하였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學而)

배워서 그것을 제때에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이것은 『논어』의 첫 장 첫 구절이다. 〈자子〉는 선생이라는 뜻으로 공자를 가리킨다. 이하 모두 같다.

학문을 닦으면서 그 배운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복습하고 연습한다면 그 배운 것이 참다운 내 지식이 되어 몸에 배게 된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나 스스로가 이렇게 수신하면 자연히 뜻을 같이 하는 동지와 감화하는 자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온

다면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인생은 항상 순탄한 길만은 아니다. 설사 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인정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때로는 오히려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도 없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도 자기의 분수를 알고 운명에 만족하여 하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한다면 그야말로 참다운 덕을 이룬 군자다운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제때에 익힌다 時習之〉는 것은 때에 맞추어 몇 번이나 복습하고 연습하는 것. 〈열說〉은 열悅과 같고,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것. 〈락樂〉은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군자君子〉는 학문과 덕이 완성된 사람.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
배워서 그것을 제때에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한번 배우면 그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기가 산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운 것을 시간 있을 때마다 복습하고 연습해 보면 차츰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된다. 즉 몸소 깨달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체득의 기쁨이야말로 학문의 참다운 기쁨이다.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학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마음의 벗이 뜻밖에 나를 찾아왔다.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學而時習之…….

인불지이불온 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학이)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거나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 경우에도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고 편안한 심정으로 소신껏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學而時習之…….

〈有子曰, ……. 君子〉務本, 本立而道生.(학이)
근본에 힘써야 하니 근본이 확립되면 방법이 생겨난다.

이 말 때문에 유학은 〈근본에 힘쓰는(務本) 학문〉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즉 사람은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말단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것에는 구애되지 말고 근본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근본적인 것을 행하면 자연히 방법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유자有子의 말)

○ 이 경우의 〈도道〉는 방법이라는 의미.

巧言令色, 鮮矣仁.(학이)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자는 어진 이가 드물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는 것과 얼굴빛을 좋게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비난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입에 발린 말만 늘어놓고, 용모나 태도를 유연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칫하면 인간 근본의 도리인 인仁의 마음이 희박해지기 쉽다.

〈曾子曰, ……〉, 爲人謀而不忠乎.(학이)
남을 위해서 일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는가.

나는 남을 위해 생각해주고 의논 상대도 되어 준다. 그러나 그 경우, 나는 정말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일에 참여했을까? 진심으로 일하면서 부족한 점은 없었을까?(증자曾子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반성한(三省) 말)

○ 〈충忠〉은 입(口)과 마음(心)을 똑바로 꿰뚫은 모양의 글자, 즉 진심이며,

표리가 없는 정직함을 뜻한다.

참고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曾子曰, ……〉. 與朋友交而不信乎.(학이)

벗과 사귀면서 신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친구와의 교제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의를 지키는 일이다. 과연 나는 이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을까?(증자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반성한 말)

▸ 爲人謀而不忠乎.

〈曾子曰, ……〉. 傳不習乎.(학이)

내가 터득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사람이란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아직 확실히 익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수하거나 가르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한다.(증자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반성한 말)

○ 〈전수받고도 그것을 익히지 않았는가〉라고 해석하는 이론異論도 있다.

▸ 爲人謀而不忠乎.

敬事而信.(학이)

일을 정성스럽게 처리하고 믿음 있게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정성을 다해서 일을 처리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당신을 신용하게 되므로 그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용을 얻고 못 얻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평소 행동에 달려 있다.

참고 道千乘之國, ……,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節用而愛人.(학이)
쓰는 것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한다.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랏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절약하는 데 마음을 쓰고,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바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재정의 여유를 국민의 복리증진에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敬事而信.

行有餘力, 則以學文.(학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학문을 닦아라.

학문의 목적은 실행에 있다. 학문을 닦는 자는 자칫하면 실무를 등한시하기가 쉬운데, 실무를 떠난 학문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 인간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확고히 행한 다음에 그래도 남은 힘이 있다면 그 남은 힘으로 학문을 닦아야 한다.
○〈문文〉은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

〈子夏曰, ……〉. 事父母能竭其力.(학이)
부모를 섬길 때는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하여 부모를 섬겨야 한다.(자하子夏의 말)
○ 자하는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모든 도리로 통하는 인간의 생활 태도라고 했다.

學則不固.(학이)
배우면 완고하지 않게 된다.

지식이 협소한 사람은 자칫하면 자신의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완고한 사람이 되기 쉽다. 학문에 의하여 지식과 식견을 넓혀 항상 너그럽고

유연한 정신 상태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무우불여기자.(학이)
無友不如己者.(학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라.

사람은 흔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비위를 맞추는 자를 친구로 삼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보다 학문과 경험이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사귀도록 힘써야 한다.

과즉물탄개.(학이)
過則勿憚改.(학이)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과오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옹졸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어떻게든 꾸며대려고 하나, 훌륭한 사람은 곧 그것을 뉘우치고 고침으로써 한 가지 실수를 하나의 귀중한 경험으로 삼는다.

〈자공왈, ……〉, 온량공검양, 이득지.(학이)
〈子貢曰, ……〉, 溫良恭儉讓, 以得之.(학이)
온화하고 유순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겸양함으로써 이를 얻었다.

선생(공자)은 어느 나라에서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관직을 얻고자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오직 온화·유순·공손·검소·겸양의 다섯 가지 덕에 의해서 그 지위를 얻었던 것이다.(자금子禽의 물음에 대하여 답한 자공子貢의 말)

참고 子禽問於子貢曰, 夫子至於是邦也, 必聞其政. 求之與, 抑與之與. 子貢曰, (중략) …….

삼년무개於父之道, 가위효야.(학이)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학이)
삼 년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의 도리를 바꾸지 않아야 효도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기가 무섭게 아버지께서 신봉하고 있던 주의나 일상생활의 풍습 등을 바꾸어버리는 행위는 정말이지 인정의 경박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인간으로서 만약 3년 동안 지금은 계시지 않는 아버지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효도라고 말할 수 있다.

〈有子曰, 禮之用〉, 和爲貴.(학이)
조화가 귀중한 것이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없으면 잘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이 조화야말로 존중해야 할 도리인 것이다.(예禮의 활용에 있어 조화의 필요성을 말한 유자의 말)

○ 예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조화로써 화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有子曰, ……〉. 信近於義, 言可復也.(학이)
약속이 도리에 가까우면 그 약속한 말을 이행할 수 있다.

도리에 맞지 않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유자의 말)

○ 〈신信〉은 약속. 〈의義〉는 도리. 〈복復〉은 리履와 같은 의미로, 이행하는 것.

〈有子曰, ……〉. 恭近於禮, 遠恥辱也.(학이)
공손함이 예의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절도 있는 태도이다. 공손한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공손함이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남에게 굽실거리는 것은 공손함이 아니다.(유자의 말)

敏於事而愼於言.(학이)
일을 민첩하게 처리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보다 실행에 힘써야 한다. 실행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 欲訥於言而敏於行.(里仁)

貧而樂.(학이)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한다.

가난할지라도 성급해 할 필요는 없다.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소신껏 살 것이며, 취미를 즐기고, 수양을 쌓는 일에 힘을 쓴다면 거기에서 자연히 적극적인 인생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참고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 富而好禮者也.

富而好禮.(학이)
부유하면서 예의를 좋아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칫 비굴해지기 쉽고, 부유한 자는 흔히 교만해지기가 쉽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나름의 인생을 즐기며, 돈이 있더라도 예, 즉 사람이 마땅히 밟아야 할 올바른 도리를 귀중히 여기고 좋아한다.

▸ 貧而樂.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학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망하고 늘 근심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초적인 일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남의 진가를 인정할 줄 모르는 옹졸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고 싶다.

○ 〈환患〉은 마음에 두는 것.

위정이덕, 비여북신거기소, 이중성공지.(爲政)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爲政)
덕으로써 정치를 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 별들이 거기로 향하는 것에 비유된다.

정치는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써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항상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으로 여러 별들이 향하여 따르듯이, 국민은 그 덕을 흠모하고 그 통치자를 따라 갈 것이다.

민면이무치.(위정)
民免而無恥.(위정)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법률로만 시종일관하는 정치 하에서는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 감정이 땅에 떨어진다. 즉 국민들은 법률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는 법망을 뚫고 거기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참고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

오십유오이지우학.(위정)
吾十有五而志于學.(위정)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나는 열다섯 살 때에 참다운 성인의 학문을 익히려는 뜻을 세웠다.

○ 74세까지 산 공자가 만년에 진술한 자기 수양의 말이다. 세상에서 15세를 가리켜 〈지학志學〉의 나이라고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다.

참고 子曰, ……,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삼십이립 三十而立.(위정)
서른 살에 자립했다.

나는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예에 입각하여 스스로 독립할 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세상에서는 30세를 〈이립而立〉의 나이라고 한다.

▸十有五而志于學.

사십이불혹 四十而不惑.(위정)
마흔 살에 망설임이 없었다.

마흔 살은 한창 활동하는 때로서,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망설임이 많은 때이지만 나는 자신의 인생 문제에 망설임이 없어졌다.

○이 말로부터 40세를 〈불혹不惑〉의 나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十有五而志于學.

오십이지천명 五十而知天命.(위정)
쉰 살에 천명을 깨달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길흉화복은 피하기 어려운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동시에 나는 이 세상을 구제할 사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자각했다.

○〈지명知命〉은 50세. 사실 공자는 50세를 경계로, 수양의 시기로부터 현실사회에서의 활동 시기로 접어들었다.

▸十有五而志于學.

육십이이순 六十而耳順.(위정)
예순 살에 모든 것을 듣는 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예순 살이 되어 경험도 많이 얻은 내 귀는 무슨 말을 듣더라도 이상하다고는 느끼지 않았으며, 저항감이나 놀라움도 없게 되었다. 세상의 일을 비로소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순耳順〉은 60세. 이순은 역이逆耳의 반대.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으며, 남의 충고나 교훈도 〈귀에 거슬리는〉 일은 이미 없어졌다고 해석된다.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위정)
일흔 살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흔 살이 된 후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결코 법도를 벗어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수양의 극치이다.

○〈종심從心〉은 70세.

▸ 十有五而志于學.

父母唯其疾之憂.(위정)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걱정한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도이다. 세상의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식의 병이다. 그러므로 어쩌다가 자신의 부주의로 병에 걸리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기질其疾〉을 부모의 병으로 해석하고, 부모의 병에는 특히 조심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色難.(위정)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어렵다.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얼굴색을 조심하지 않으면 효행이 되기가 어렵다. 색色이란 단지 안색뿐만 아니라 태도·언행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종일 불위여우
終日, 不違如愚.(위정)
종일토록 내 말을 어기지 않아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하루 종일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반론을 하지 않고 그저 유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마치 바보와 같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완전히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가장 뛰어난 제자 안회顔回를 평가한 공자의 말)

참고 子曰, 吾與回言…….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不愚.(위정)

시이소이 관이소유 찰이소안 인언수재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위정)
그 행위를 관찰하고 그 행위의 동기를 살피며 그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누군들 자신을 어찌 감출 수 있겠는가.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의 동기를 살피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반드시 그 인물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 〈以이〉는 〈爲위〉와 음이 통하기 때문에 〈행하다〉로 해석한다. 〈視시〉보다는 〈觀관〉, 〈관〉보다는 〈察찰〉의 순서로 갚게 보는 것.

온고이지신
溫故而知新.(위정)
옛 것을 파악하여 새로운 것을 알다.

무슨 일이든지 과거를 돌이켜 보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킨 다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과거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 과거를 무시해버리고, 오직 새것에만 집착하는 것도 또한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君子不器.(위정)
군자는 한정된 그릇이 아니다.

찻잔도 그릇이고 주전자도 또한 그릇이다. 하지만 찻잔은 차를 담는 구실밖에 못하며, 주전자도 역시 주전자의 기능밖에 지니지 못한다. 훌륭한 사람이란 그와 같은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인적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周而不比.(위정)
널리 사귀며 당파를 만들지 않는다.

남과 교제할 때 널리 여러 사람과 공평한 태도로 사귀는 것이 마땅하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친숙한 사람과 붕당朋黨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비比〉는 친밀하다와 같은 의미. 여기서는 붕당을 만든다는 뜻.

學而不思則罔.(위정)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고, 또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는 일이 없다면 배운 것도 어렴풋하고 불안정하여 확실한 윤곽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완전히 체득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망罔〉은 〈망惘〉과 같은 의미로서 〈뚜렷하지 못한 형태〉를 의미한다.

참고 子曰, ……. 思而不學則殆.

思而不學則殆.(위정)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생각하거나 골똘하게 고심하여 결심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만약 배운 것이 없다면 위험하다.
이것은 특히 젊은이들이 명심하기를 바라는 말이다. 그들은 지식도 얕고 또한 시야도 좁다. 생각만 있을 뿐 배우는 것을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표적이 빗나간 강한 활에 화살을 시위에 메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學而不思則罔.

攻乎異端, 斯害也已.(위정)
이단을 좇으면 해가 될 뿐이다.

학문이나 기술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것을 이단異端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이단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이익보다 해가 더 많다. 그러므로 신기한 것을 좇기보다는 정도를 밟아 견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성공하는 올바른 길이다.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위정)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안다는 것이다.
〈어리석음도 어리석음을 지키면 어리석지 않다〉라고도 한다. 즉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多聞闕疑, 愼言其餘, 則寡尤.(위정)
많이 듣고 의심나는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 아는 것만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되도록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남에게 말할 때는 완전히 납득된 것에만 그칠 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는 것은 입 밖에 꺼내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도 적어지게 될 것이다.

擧直錯諸枉, 則民服.(위정)
정직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 위에 세우면 백성들이 복종한다.

예를 들어 반듯한 널빤지를 구부러진 관자 위에 놓아보자. 밑에 놓인 구부러진 널빤지도 반듯하게 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을 기용해서 사람들 위에 앉히면 국민이든 부하든 저절로 올바르게 되어 그에게 마음으로 복종하게 될 것이다.

擧善而敎不能則勸.(위정)
우수한 사람을 등용하고 무능한 사람을 가르치면 맡은 일에 힘을 다한다.

좋은 정치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우선 훌륭한 인재를 기용하라. 그런 다음에는 무능한 사람들도 가르치고 이끌어 성적을 올리도록 선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신뢰하고 기뻐하며 스스로 각자 맡은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人而無信, 不知其可也.(위정)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으면 좋지 않다.

인간관계, 인간의 사회는 신의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다. 신의 없이는 인간관계도 사회도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신의가 없는 자는 훌륭하다고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非〈其〉鬼而祭之, 諂也.(위정)
제사지내야 할 귀신이 아닌데 제사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제사지내야 할 대상이 아닌데 제사지내는 것은 아첨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류이다.
귀신은 원래 인간 조상의 영혼인데 일반적으로는 신이라고 부르고 있다. 제사지내야 할 신이 아닌 것, 예를 들면 여우라든가 그 밖에 괴상한 요물들을 제사지내는 것은 사이비종교(淫祠邪敎)에 속하는 것으로, 진정한 제사라고는 할 수가 없다.

見義不爲, 無勇也.(위정)
의로운 것을 보고 행하지 않음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혹은 이런 것이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라고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을 나는 용기가 없는 자라고 한다.

禮與其奢也, 寧儉.(八佾)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

분수에 넘치는 일은 모두 예의에 어긋난다. 관혼상제冠婚喪祭에서 지나치게 사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검약하는 편이 훨씬 예의에 맞는다. 물질뿐 아니라 정신의 단속도 또한 검소함(儉)이다. 의식이나 선물 같은 것도 지엽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행하는 마음이야말로 중요한 근본이다. 어디까지나 본말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

繪事後素.(팔일)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을 마련한 다음에 해야 한다.

그림을 그릴 때는 우선 밑바탕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색채를 칠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밑바탕을 만드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이다. 그러나 견실한 밑바탕(素) 없이는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몸을 장식하는 것보다는 먼저 수양을 쌓아 마음의 성실함을 근본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祭如在, 祭神如神在.(팔일)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이 계신 듯이 하고, 신을 제사지낼 때는 신이 계신 듯이 정성을 다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지내는 대상이 있는 듯이 정성을 다하여라〉라는 옛말이 있다. 그 뜻은 신을 제사지낼 때 마치 그곳에 신이 정말로 계신 듯한 생각으로 제사지내는 것이다. 단순한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해서 행하라고 말한 것이다.(『논어』 편집자의 말)

與其媚於奧, 寧媚於竈.(팔일)
방 안의 아랫목 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엌의 부뚜막 신에게 잘 보여라.

집의 안방에 모셔 놓고 제사지내는 신주에게 빌기보다는 그 집 부엌의 부뚜막 신을 섬기는 편이 얻어먹을 것이 많다.(왕손가王孫賈가 질문한 속담)

○〈장군을 쏘려면 먼저 그 말을 쏘아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군주에게 가까이 하려는 것보다는 세력을 가진 신하(왕손가가 자신을 가리켜 한 말)에게 아첨하는 편이 손쉽게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좋지 않은 마음가짐이므로 공자는 그 비유에 대하여 그것은 결국은 천벌을 받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훈계하고 있다.

참고 王孫賈問曰, ……. 何謂也. 子曰, 不然. 獲罪於天, 無所禱也.